

2024. 4. 23.(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7쪽

북부공원여가센터장	유재명	02-2289-4010
공원운영과장	주혜란	02-2289-4021
운영팀장	강현희	02-2289-4042

지구의날 맞아 서울시·주한EU·시민 북서울꿈의숲에 나무 식재

- 4.22.(월) 10시 지구의 날을 맞아 북서울꿈의숲에서 나무심기 행사 개최
- 서울시·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및 직원, 내나무갓기 행사 시민 100명 참여
-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전나무 등 2종 20주, 시민들 배롱나무 등 4종 287주 식재 예정
- 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함께 상호협력 방안 모색

- 서울특별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22일(월) 오전 10시에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와 함께 북서울꿈의숲에서 나무 식재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내나무갓기’ 행사와 함께 진행되며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나무심기를 통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천하고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구의 날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세계 기념일로 전 세계인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북서울꿈의숲 희망의 벽 인근 녹지대에 시민들과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저감 숲과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 **행사는 서울시와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Maria Castillo Fernandez), 부대사(프레드릭 엑펠트, Fredrik Ekfeldt) 등 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전나무 등 2종 20주의 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지속되는 기후 위기 속 나무심기를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예정이다.**
 -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는 기후 변화와 관련한 폭넓은 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협력해 왔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실현 중이다.

- **더불어 (사)생명의숲과 함께 진행하는 ‘내나무갓기’는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직접 도시숲을 조성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참여형 친환경 활동으로, 북서울꿈의숲에 배롱나무 등 4종 287주의 나무를 직접 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상반기(봄) 나무심기는 2024년 3월 15일까지 서울마이트리 (<https://seoulmytree.forest.or.kr>)에서 기부 신청을 받았으며 직접 나무 심기를 원하는 10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 **나무심기는 ▲행사취지 및 나무심는 방법 안내 ▲기념촬영 ▲참가자 조별 나무 심기 순으로 진행되며, 나무 심기 후 서울시와 EU대표부 간 공원녹지 및 기후환경 관련 상호협력 콘텐츠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ZERO정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과 연계하여 공원녹지 정책을 통한 탄소저감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유럽연합국 소재 공원에 서울의정원 조성 시에도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이수연 푸른도시국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며, “지구의 날을 맞아 주한EU대표부, 시민들과 나무심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실천하고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북서울꿈의숲 나무심기 행사 계획 1부.
2. 식재 장소 및 대상지 1부.
3. Q&A 1부. 끝.

※ 사진자료 : 4월 22일 행사 후 제공

□ 행사개요

- 일 시: 2024. 4. 22.(월) 10:00 ~ 11:30 ※ 우천시 변경 가능
- 장 소: 북서울꿈의숲 희망의벽 일대 (번동 90 일대)
- 공동개최: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사)생명의숲
- 참 여: 125명
 - 서울마이트리 참여시민 100명, 주한EU대표부 대사 등 25명
- 내 용: 시민과 함께 내나무 심기, 사진 촬영 등
 - 시민: 화살나무 등 4종 287주
 - 주한EU대표부: 전나무 등 2종 20주

□ 진행순서(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15 (15')	○ 행사취지 및 나무심는 방법 안내	생명의 숲 주관 (집결지)
10:15~15:20 (5')	○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참여자, EU대표부)
10:20~11:00 (40')	○ 나무심기 (전나무 1주, 수수꽃다리 50주)	도보 이동 (식재대상지)
11:00~11:20 (20')	○ EU 대표부 - 푸른도시여가국장 면담	도보 이동 (상상톡톡미술관앞)

※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치도



□ 식재대상지



|Q1| 지구의 날이란?

- ◆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전 세계인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은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듬해인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첫 행사가 열리면서 ‘지구의 날’은 시작됐다.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연설을 하거나 지구환경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1972년에는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를 주제로 환경보전에 서로 간 협조를 약속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경제개발로 인해 환경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지구의 날이 스무 살을 맞이하던 1990년, ‘제2회 지구의 날’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면서 환경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고, 현재는 매년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기념일로 자리 잡았다.

|Q2| 나무 심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나무 심는 기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을 묘목을 준비함
2. 뿌리 부분보다 조금 더 크게 구덩이를 팠
3. 겉흙과 속흙은 따로 모아두고 돌, 낙엽 등을 걷어냄
4. 구덩이 안에 부드러운 겉흙을 먼저 넣음
5. 뿌리를 잘 펴서 곧게 세운 후 겉흙부터 구덩이의 2/3가량 채움
6. 묘목을 살며시 위로 잡아당기면서 밟아줌
7. 나머지 흙을 모아 지면보다 약간 높게 정리한 수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납엽이나 풀 등으로 덮어줌



CHECK 1

- 묘목이 굽거나 뿌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 구덩이가 얇아서 뿌리가 구부러지고 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CHECK 2

- 비탈진 곳에 심을 때는 덮은 흙이 비탈지게 하지 않고 수평으로 한다.



CHECK 3

- 너무 깊거나 얇게 심지 않는다.